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

Children's Perspective-taking and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Abilities according to Parents' Verbal Control Styles

남현영* · 이소은
삼양유치원 · 충북대학교

Nam Hyun-Young · Lee So Eun
SamYang Kindergarten · C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difference of parents' verbal control styles influence children's perspective-taking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7 five-year-old children with their parents included. The questionnaire used was relevant to the topic, such as parents' verbal control styles, young children's perspective-taking ability, and their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s. The percent, mean, standard deviation, three-way ANOVA, and Scheffe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collected through SPSS WIN program.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father's verbal control style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young child's perspective-taking ability. However, there i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parents' verbal control styles and a child's sex.

Second, a father's verbal control style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young child's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s. Character-oriented verbal control mode of a father, in particular, produces more effects on boys than girls.

Lastly, Two skills - alternative problem-solving skills and cause-solving skills - have interaction effects. Boys demonstrate higher skills than girls when parents apply character-oriented verbal control styles. Girls do so when mothers use position-oriented verbal control styles, especially in the area of cause-solving skills.

Key words : Verbal Control Styles, Perspective taking ability,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에게 최초의 사회화 인자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부모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인지와 정서적 기초 함양의 토대를 형성시킨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기본적인 인격구조 및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며 지속적인 성장발달을 한다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역할 수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영자, 2000).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유아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유형이 각 가정내의 역할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통제유형에 차이를 야기하여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Bernstein(1971)의 주장에 따라 유아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언어사용유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자녀양육시 행동변화의 목적으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에게 부여하는 역할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명령지향형, 지위지향형, 인성지향형 세 유형으로 나뉜다. 명령지향형은 자녀의 역할 재량권을 무시하며 신체적, 언어적 강제나 명령만을, 지위지향형은 개인의 특정한 지위나 보편적 사회규범에 내재한 규범에 근거하며, 인성지향형은 자녀의 특성에 따라 역할 재량권을 부여하며 개인의 특성, 의도, 동기의 관점을 고려하는 언어통제유형을 의미한다.(Gumperz, 1973).

* Corresponding author: Nam hyun-young
Tel: 042)284-6432
E-mail)nhy641@korea.com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부모의 언어유형이 아동의 부적응행동(김리은, 1996; 김희정, 2000), 내외통제성(서선주, 1988; 이순재, 1994), 의사소통능력(이완정, 1990), 조망수용능력(신양재, 1986; 하보영, 2003), 자아존중감(고영자, 2000; 김여가, 1996; 이현주, 1990) 자아개념(이윤희, 2000), 사회적 능력(이경희, 1993), 감성지능(이종헌, 2000)과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긍정적 행동발달과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출산율 저하와 핵가족화 등 가족체계 변화와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부부간의 역할평등 및 공평한 역할분담 요구와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역할이 강조(이종헌, 2000)되는 현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아버지를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은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머니와 영향력이 비슷하다(Russell & Russell, 1987).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뿐만 아니라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나림, 조순옥, 1995; 성수현, 1996; 오미경, 1990). 반면,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은 청소년 비행과 관련이 있고(민하영, 1992), 아버지의 인성적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킨다(김희정, 2000)는 연구는 아버지가 구사하는 언어유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부모의 언어통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의 인성지향형 언어통제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반면, 명령지향형 언어통제는 사회적 능력발달과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영자, 2000; 김여가, 1996, 이경희, 1993).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부모가 구사하는 언어통제가 인성지향형일 때 자아개념(이윤희, 2000)과 친사회적 사고(도혜숙, 1997)가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가 명령지향형 언어통제를 사용하는 경우 유아의 공격성이 높다(김여가, 1996)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가 구사하는 인성지향형 언어동제유형이 유아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키고, 친사회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의 사회인지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사회인지능력(social cognition ability)은 타인의 견지에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받아들이고 추론해 내는 능력으로 1960년대 초반부터 발달 심리학자와 사회심리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사회인지능력은 크게 자기에 대한 이해 능력,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 능력으로 분류된다. 그 가운데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속에서 관계를 형성해감에 따라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분야, 즉 타인의 사고, 감정, 기분 등을 추리해 내는 사회적 조망수용(social perspective-taking)이나 대인간 이해력(interpersonal understanding)과 같은 사회적 인지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은 아동의 심리발달뿐만 아니라 참조적 의사소통 능력,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대인 지각, 의도 짐작하기와 같은 다른 사회인지 능력의 성취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다(Berk, 2000). 즉 조망수용능력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근원이 되는 사회적 능력 중 하나로 사회성원의 일원으로 갖추어야 하는 유아기 발달과업 중 하나다. 유아는 언어를 습득함에 따라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유형을 통해 조망수용능력 또한 발달하게 된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신양재(1986)는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통제방식이 인성지향형일수록 아동의 역할조망능력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신지체아를 대상으로 감정조망 및 조망단서를 연구한 김선희(2001) 역시 부모 모두 인성지향형 언어통제를 사용할 때 정신지체아의 역할조망능력이 높아진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의 틀 역시 유아기에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연구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시작이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능력 가운데 야기된 갈등이나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는 대인문제해결력에 주목하고 있다(노영희, 1990, 유양례, 1999; Asher, Renshaw & Hymel, 1982; Spivack & Shure, 1974).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대인간의 갈등이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으로 대인문제해결력은 유아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유양례, 1999; 홍경옥, 1998). 관계형성 또한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대인문제해결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인성지향형일 때 자녀들이 대인문제 해결능력이 우수하고(송수원, 2002), 어머니가 인성지향형

의 언어를 사용할 때 대인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이 우수(나수진, 1996; 유재은, 2001; 이혜경, 1998)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인문제해결력 역시 부모의 양육을 통해 구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 신장에 보다 효과적인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을 밝히기 위해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유아의 경우, 과거에는 가정에서 형제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대안문제해결을 경험하였으나 출산율 감소로 인해 가정에서 형제간의 상호작용의 기회축소로 부모의 언어제통제유형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흐름을 발맞춰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가운데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유아의 성에 따라 부모가 선호하는 언어통제유형이 있다(김리은, 1996; 김선홍, 2001; Devereux, Bronfenbrenner & Rodgers, 1969)는 보고와 성에 따른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구사가 차이가 없다(김영주, 1999; 도혜숙, 1997)는 등 결과가 불일치하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상술한 바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의 영향의 정도가 강하고 타인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간의 차이 인식이 가능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라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인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부모교육자료와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 신장을 촉진시키는 교육과정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라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라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O군에 소재 한 S유치원과 J유치원의 만 5세 유아 130명과 해당 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를 만 5세 유아로 선정한 이유는 4, 5세 정도면 유아가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간의 차이인식이 가능하다(Marvin, 1976)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질문지는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질문지를 보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한 질문지는 다시 유아를 통해 유치원으로 가져오게 하여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질문지는 만 5세 유아의 부모 각각 130명에게 배부하여 어머니용은 128부, 아버지용은 125부가 회수되었다. 이 가운데 항목별로 누락된 경우와 편부모 혹은 조부모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어머니용, 아버지용 각각 117부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검사도구는 Bernstein(1971)과 Gumperz(1973)의 정의에 근거하여 언어통제유형을 명령지향형 통제, 지위지향형 통제, 인성지향형 통제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제작한 도혜숙(1997)의 척도와 Bernstein의 이론을 근거로 Gumperz가 제시한 언어통제유형(김경희, 1991)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아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상황을 총 25개 문항으로 기술하여 타당도를 인정받은 임규란(2001)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명령지향형 .90, 지위지향형 .90, 인성지향형 .91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각 문항마다 3가지 언어통제 유형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유형 각각에 대해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점, 항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5점을 주는 리커트식 척도를 제시하였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직접 써넣도록 하였다. 3가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응답범위는 각각 25-125점 사이로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언어통제유형을 많이 사용함을 뜻한다.

2) 조망수용 검사도구

본 연구의 조망수용 측정은 Hudson, Forman과 Brion(1982)의 조망수용능력 도구를 신현옥(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은 타인의도조망과 타인사고조망, 그리고 타인감정조망으로 되어 있으며 조망수용측정에 사용된 도구의 구성은 각각 2가지씩의 이야기가 제시되며 각각의 이야기는 총 4개의 그림이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타인의도조망 .92, 타인사고조망 .90, 타인감정조망 .86으로 나타났다.

3) 대인문제해결사고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문제해결사고 검사도구는 Spivack과 동료들(1976)의 ICPS(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Skill) Test를 토대로 박찬옥(1986)이 제작한 '대인문제해결사고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네 가지 하위사고 즉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예측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 목적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단-목적사고는 선행연구(박찬옥, 1986)를 토대로 유아들에게 실시하기 다소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단-목적사고를 제외하고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예측사고, 원인적 사고로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을 측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값이 대안적 해결사고 .90, 결과예측사고 .91, 원인적 사고 .9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검사

예비검사는 본 연구대상이 아닌 D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10명을 대상으로 연구도구의 적절성과 소요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자유선택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대인문제해결력 검사는 각 하위요소마다 반응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5번 이상을 반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검사의 반응기회를 5번으로 한정하였다.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 두 검사간의 적절한 검사를 위해 유아가 3-4일에 걸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어 실시하였다.

2) 연구보조자 훈련

본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 검사를 담당할 보조연구자(유아교육전공)에게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 검사도구에 대한 이해 및 실시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검사도구를 상세히 점검해보고 숙지하도록 하였다. 라포형성을 위해 보조연구자를 2주일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보조교사로 참여하게 했으며, 검사지의 내용과 순서에 맞게 유아에게 질문하는 방법, 유아의 대답과 반응을 별도의 용지에 기록하는 방법 등을 알려 주었다.

3) 본 검사

본 검사는 만 5세 유아 117명을 대상으로 자유선택활동시간을 통해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3주 동안 실시하였다. 면접은 유치원의 조용한 공간(유희실, 연구실)에서 본 연구자와 예비교육을 받은 보조연구자 2명(유아교육전공 대학원생)과 유아간의 일대일 면접으로 실시되었다.

검사는 유아가 제시된 이야기 과제에 대하여 언어적 보고를 하고 검사자는 검사 중 유아의 응답을 녹음하였으며, 검사가 끝난 후 검사자는 면접지와 녹음자료를 근거로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의 수준에 대해 평정하였다. 각 검사도구의 평균 검사시간은 20분씩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구하고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이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해석

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성에 따른 조망수용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언어유형	성별	어머니 N	어머니 명령지향 M(SD)	어머니 지위지향 M(SD)	어머니 인성지향 M(SD)	아버지 N	아버지 명령지향 M(SD)	아버지 지위지향 M(SD)	아버지 인성지향 M(SD)	전체 M(SD)
전체	남	57	21.50(3.48)	22.59(3.27)	22.15(2.88)	57	21.44(4.21)	22.65(2.00)	22.52(3.30)	9.08(1.64)
	여	60	22.90(3.48)	22.14(3.95)	22.47(2.25)	60	21.63(4.51)	22.28(2.85)	23.87(1.36)	9.20(1.62)
	전체	117	22.38(3.31)	22.42(3.53)	22.34(2.48)	117	21.53(4.30)	22.43(2.52)	23.08(2.72)	
타인의도	남	12	8.50(2.02)	9.19(1.65)	9.38(1.12)	12	8.50(1.90)	9.25(1.21)	9.38(1.74)	6.28(1.10)
	여	20	9.30(1.56)	9.05(2.01)	9.26(1.24)	20	8.43(2.28)	9.31(1.47)	9.80(.41)	6.23(1.28)
	전체	32	9.00(1.76)	9.13(1.79)	9.31(1.18)	32	8.47(2.06)	9.29(1.35)	9.56(1.36)	
타인사고	남	32	6.17(.84)	6.44(1.19)	6.00(1.08)	32	6.31(1.25)	6.35(0.99)	6.19(1.12)	6.88(1.35)
	여	21	6.30(1.26)	6.38(1.32)	6.00(1.29)	21	6.31(1.62)	6.04(1.27)	6.53(.83)	7.05(1.28)
	전체	53	6.25(1.11)	6.42(1.23)	6.00(1.19)	53	6.31(1.42)	6.16(1.16)	6.33(1.01)	
타인감정	남	13	6.83(1.34)	6.93(1.22)	6.77(1.74)	13	6.63(1.82)	7.00(1.26)	6.95(1.02)	22.34(3.20)
	여	19	7.43(3.18)	6.67(1.46)	7.21(1.13)	19	6.88(1.41)	6.90(1.45)	7.53(.52)	22.50(3.19)
	전체	32	7.13(1.24)	6.83(1.31)	7.03(1.40)	32	6.75(1.61)	6.94(1.36)	7.19(.89)	

<표 2>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성에 따른 조망수용능력의 삼원변량분석

하위요인	변량원	SS	df	MS	F	사후검증
전 체	A(어머니언어유형)	2.77	2	1.39	.14	
	B(아버지언어유형)	42.44	2	21.22	2.07	
	C(유아의 성)	.09	1	.09	.01	
	A×B	24.77	4	6.19	.60	
	A×C	16.11	2	8.06	.79	
	B×C	11.21	2	5.60	.55	
	A×B×C	57.50	4	14.38	1.40	
	오차	1015.00	99	10.25		
	전체	59803.00	117			
타인의도조망	A(어머니언어유형)	1.99	2	.99	.38	
	B(아버지언어유형)	18.04	2	9.02	3.47*	인성/지위 > 명령/지위
	C(유아의 성)	.24	1	.24	.09	
	A×B	4.33	4	1.08	.42	
	A×C	2.27	2	1.13	.44	
	B×C	3.67	2	1.83	.71	
	A×B×C	17.17	4	4.30	1.65	
	오차	257.20	99	2.60		
	전체	10092.00	117			
타인사고조망	A(어머니언어유형)	2.58	2	1.29	.88	
	B(아버지언어유형)	.23	2	.11	.08	
	C(유아의 성)	0.04	1	0.04	.03	
	A×B	4.87	4	1.22	.83	
	A×C	1.20	2	.60	.41	
	B×C	.98	2	.49	.36	
	A×B×C	6.80	4	1.70	1.16	
	오차	245.18	99	1.47		
	전체	4744.00	117			
타인감정조망	A(어머니언어유형)	3.19	2	1.60	.88	
	B(아버지언어유형)	4.64	2	2.32	1.28	
	C(유아의 성)	1.01	1	1.01	.56	
	A×B	3.04	4	.76	.42	
	A×C	4.57	2	2.28	1.26	
	B×C	.97	2	.49	.27	
	A×B×C	3.48	4	.87	.48	
	오차	179.29	99	1.81		
	전체	5877.00	117			

*p<.05

<표 1>에서 보면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서는 유아의 전체 조망수용능력에서의 평균점수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인성지향형(M=23.08, SD=2.72), 지위지향형(M=22.43, SD=2.52), 명령지향형(M=21.53, SD=4.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변인별로도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인성지향형일 때 유아의 타인의도 조망수용능력(M=9.56, SD=1.36)과 타인감정 조망수용능력(M=7.19, SD=0.89)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에 따른 유아의 전체 조망수용능력 점수는 여아(M=9.20, SD=1.62)가 남아(M=9.08, SD=1.64)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에서 나타난 유아의 조망수용능력 점수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타인의도 조망수용능력만이 아버지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F=3.47$, $df=2, 117$, $p<.05$). 이런 결과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버지들의 언어구사방식이 유아의 타인의도 조망수용능력에 보다 큰 차이를 가져온 것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보다 유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적더라도 권위 있는 인물인 아버지의 언어구사방식은 늘 함께 있는 어머니보다 유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배려적인 인성지향형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아의 타인의도 조망수용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조망수용능력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들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인해 실제 응답한 것과 유아에게 사용하는 언어통제유형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지나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인성지향적일수록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이 높다는 하보영(2003)의 연구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일 인성지향적일수록 정신지체아의 조망수용능력이 높다는 김선희(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2.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성에 따른 대인문제해결력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성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성에 따른 대인문제해결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언어유형	성별	어머니 N	어머니 명령지향 M(SD)	어머니 지위지향 M(SD)	어머니 인성지향 M(SD)	아버지 N	아버지 명령지향 M(SD)	아버지 지위지향 M(SD)	아버지 인성지향 M(SD)	전체 M(SD)
전체	남	57	16.58(2.23)	16.47(2.02)	17.38(1.56)	57	15.81(1.56)	16.20(2.09)	17.86(1.62)	16.70(1.97)
	여	60	16.55(1.57)	17.24(1.76)	16.84(2.36)	60	16.69(1.70)	16.48(1.70)	17.87(2.23)	16.88(1.91)
	전체	117	16.56(1.81)	16.77(1.94)	17.06(2.06)	117	16.25(1.66)	16.37(1.86)	17.86(1.87)	
대안적 해결	남	12	6.75(1.06)	6.69(1.47)	7.00(1.29)	16	6.19(1.28)	6.30(1.22)	7.67(1.02)	6.78(1.34)
	여	20	6.25(.44)	6.62(1.36)	6.74(1.19)	16	6.31(.70)	6.52(1.21)	6.80(1.15)	6.53(1.08)
	전체	32	6.44(.76)	6.66(1.41)	6.84(1.22)	32	6.25(1.02)	6.43(1.21)	7.31(1.14)	
결과 예측	남	32	5.67(1.07)	5.66(.87)	5.62(.65)	20	5.38(.81)	5.70(.98)	5.81(.75)	5.65(.86)
	여	21	6.15(1.18)	5.95(.92)	5.79(1.32)	29	6.00(1.32)	5.76(.95)	6.33(1.23)	5.97(1.13)
	전체	53	5.97(1.15)	5.77(.89)	5.72(1.08)	49	5.69(1.12)	5.73(.96)	6.03(1.00)	
원인적 사고	남	13	4.17(.94)	4.13(.94)	4.77(.44)	21	4.25(.58)	4.20(1.01)	4.38(.97)	4.28(.88)
	여	19	4.10(. 85)	4.67(.97)	4.32(.67)	15	4.31(.70)	4.20(.82)	4.73(1.03)	4.37(. 86)
	전체	32	4.13(. 87)	4.34(. 98)	4.50(.62)	36	4.28(. 63)	4.20(. 89)	4.53(1.00)	

<표 3>에 의하면 유아의 전체 대인문제해결력은 어머니가 인성지향형(M=17.06, SD=2.06)의 언어를 구사할 때 가장 높았으며, 하위요인별로 보면 대안적 해결사고력 및 원인적 사고력 역시 어머니의 언어구사유형이 인성지향형일 때 가장 높았다.

아버지의 언어유형에 따른 유아의 전체 대인문제해결력 역시 인성지향형(M=17.86, SD=1.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도 아버지의 언어유형이 인성지향형일 때(대안적 해결사고력: M=7.31, SD=1.14, 결과예측사고력: M=6.03, SD=1.00, 원인적 사고력: M=4.53, SD=1.00)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아(M=16.88, SD=1.91)가 남아(M=16.70, SD=1.97)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안적 해결사고(남아: M=6.78, SD=1.34, 여아: M=6.53, SD=1.08)를 제외한 결과예측(남아: M=5.65, SD=0.86, 여아: M=5.97, SD=1.13) 및 원인적 사고력(남아: M=4.28, SD=0.88, 여아: M=4.37, SD=0.86)에서 여아의 점수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에서 나타난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 점수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이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전체 대인문제해결력에서 아버지의

<표 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성에 따른 대인문제해결력의 삼원변량분석

하위요인	변량원	SS	df	MS	F	사후검증
전 체	A(어머니언어유형)	3.77	2	1.88	.59	
	B(아버지언어유형)	47.78	2	23.89	7.47**	인성>지위/명령
	C(유아의 성)	.62	1	.62	.19	
	A×B	17.11	4	4.28	1.34	
	A×C	24.12	2	12.06	3.77**	
	B×C	11.09	2	5.54	1.73	
	A×B×C	16.10	4	4.03	1.26	
	오차	316.60	99	3.20		
	전체	33435.00	117			
대안적 해결 사고	A(어머니언어유형)	1.87	2	.94	.72	
	B(아버지언어유형)	14.64	2	7.32	5.65**	인성>지위/명령
	C(유아의 성)	2.49	1	2.49	1.92	
	A×B	.23	4	.05	.04	
	A×C	6.50	2	3.25	2.51	
	B×C	8.12	2	4.06	3.13*	
	A×B×C	4.59	4	1.14	.89	
	오차	128.30	99	1.30		
	전체	5344.00	117			
결과 예측 사고	A(어머니언어유형)	1.56	2	.78	.77	
	B(아버지언어유형)	2.76	2	1.38	1.35	
	C(유아의 성)	1.69	1	1.69	1.66	
	A×B	6.07	4	1.51	1.49	
	A×C	0.5	2	.02	.03	
	B×C	2.56	2	1.28	1.26	
	A×B×C	3.29	4	.82	.81	
	오차	100.09	99	1.02		
	전체	4072.00	117			
원인적 사고	A(어머니언어유형)	.17	2	.08	.12	
	B(아버지언어유형)	3.66	2	1.83	2.56	
	C(유아의 성)	.31	1	.31	.44	
	A×B	6.06	4	1.51	2.11	
	A×C	6.33	2	3.17	4.42*	
	B×C	.22	2	.11	.15	
	A×B×C	1.66	4	.42	.58	
	오차	70.87	99	.72		
	전체	2276.00	117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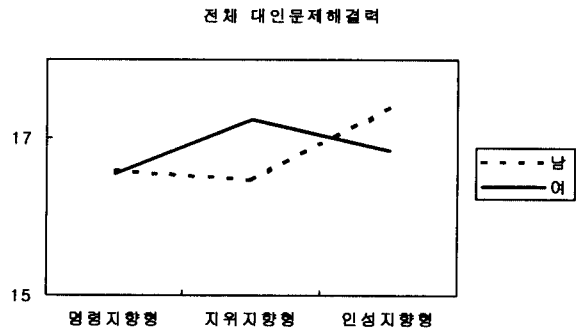
언어통제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F=7.47, df=2, 117, p<.01).

전체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를 야기한 아버지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추후 검증결과, 아버지의 언어유형이 인성지향형인 경우 지위지향형과 명령지향형보다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아버지의 인성지향성의 언어유형이 상호작용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되어 대인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야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대인문제해결력에서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F=3.77, df=2, 117, p<.0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라 발생한 전체 대인문제해결력의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남아는 어머니가 인성지향적인 언어유형을 구사할 때 제시하는 대안이 많이 나타난 반면, 여아는 어머니가 지위지향형의 언어유형을 사용할 때 대안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감정을 다루고 배려하는 일에 서투른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인성지향적 언어구사방식을 사용하는 모델이 되는 경우가 효과적이며, 동성인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지위와 권위를 내세우는 지위지향형의 언어구사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역할모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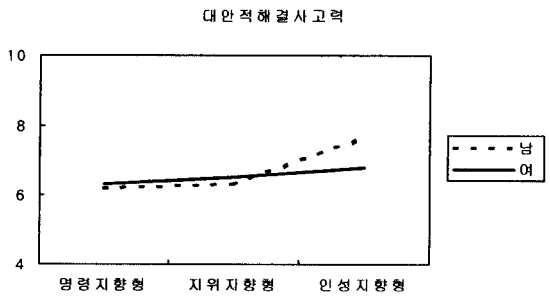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성과의 상호작용

한편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대안적 해결사고력이 차이가 났다(F=5.65, df=2, 117, p<.01). 이에 대한 추후 검증결과, 아버지가 구사하는 언어유형이 인성지향형일 때 지위지향형이나 명령지향형보다 유아의 대안적 해결사고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성지향형의 언어를 구사하는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 스스로 경험한 상호존중감을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투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문제해결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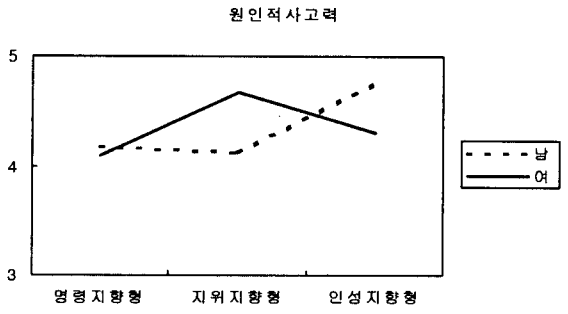
또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도 발견되었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의하면 유아의 대안적 해결사고력은 아버지가 인성지향형의 언어유형을 사용할 때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동성의 아버지가 타인의 특성, 의도, 동기 등을 배려하는 언어구사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상황에 대한 순발력 있는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아의 경우 생래적으로 타인의 심리적 상태에 미숙함으로 이를 고려한 아버지의 의사소통방식에 노출되는 것이 대안적 해결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력이 남아가 여아보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송수원(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대인문제해결력 하위변인 중 원인적 사고력에서 어머니의



<그림 2> 아버지의 언어유형과 성과의 상호작용



<그림 3>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성과의 상호작용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4.42, df=2, 117, p<.0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른 원인적사고력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의하면 유아의 성에 따른 원인적 사고력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는 어머니가 인성지향적인 언어유형을 사용할 때 원인적 사고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는 어머니가 지위지향형의 언어유형을 사용할 때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인성지향형의 언어는 남아로 하여금 상호간 문제발생시 원인탐색을 자유로이 하는 원인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반면, 개인의 특정한 지위나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는 어머니의 지위지향형 언어는 인성지향형의 언어통제유형보다 사용빈도는 적으나 온정적인 여아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됨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가정이나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조망수용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인성지향형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의 타인의도 조망수용능력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생활지도 참여가 많을수록 유아의 역할수용능력이 높다(최경순, 1992)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인성지향형일수록 정신지체아의 조망수용능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김선희(2001)의 연구와 부모의 인성지향형 언어통제유형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을 증진시킨다는 하보영(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이 만 4세에서 만 5세 사이에 급증한다(김정진, 1991; 정선원, 2000)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만 5세 유아들은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로 이미 탈중심성을 획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항상 같이 있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보다 권위 있고 타인의 감정에 배려를 보이는 아버지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방식이 유아의 타인의도 조망수용능력 발달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성에 따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인지적 조망수용능력과 정서적 조망수용능력 모두 성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공화진, 1990; 문희영, 1984; 신동자, 2002)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서적 조망수용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Eisenberg-berg 와 Lemon(1980), Feshbach(1969)의 결과와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발달되어 있다는 Kurdek 과 Rogan(1975), 이정혜(198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므로 이에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조망수용능력 발달에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미치는 효과가 유아의 성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유아의 조망수용능력 발달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가 구사하는 인성지향형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 향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인성지향형 언어통제를 사용할 때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방안이 많았다는 송수원(2002)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내의 아버지가 존재함으로써 어머니가 유아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Lytton(1977)의 연구결과와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인성지향형 일수록 유아의 대인문제해결 방안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연구(나수진, 1996; 유재은, 2001; 이혜경, 1998)결과와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타인의 의도, 감정,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데 인색한 아버지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성지향형 언어를 사용할 때 어머니에 비해 유아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아버지의 언어유형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가족형태의 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제도적으로 아버지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어 주 5일제 근무의 정착화 등으로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서 자녀양육시 사용하는 부모의 언어가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유아의 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전체 대인문제해결력에서 어머니의 언어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아는 어머니가 인성지향적인 언어유형을 구사할

때, 여아는 어머니가 지위지향형의 언어유형을 사용할 때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인성지향형일 때 유아들의 대안적 해결사고가 우수하고 남아가 여아보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남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를 모방하게 되므로 남아가 아버지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력은 남아가 여아보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송수원(200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남아는 어머니가 인성지향형의 언어유형을 사용할 때, 여아는 지위지향형의 언어를 사용할 때 원인적 사고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 여아에게 허용적이지만 어머니의 경우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허용적이라는 Rothbarth와 Maccoby(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어머니가 규칙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이유를 보다 많이 설명해 주는 허용형의 인성지향형 언어유형을 사용하는 남아가 더 많은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한 반면, 어머니와 동성인 여아는 어머니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지위지향형의 언어를 경험할 때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성에 따른 대인문제해결력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명확한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후속연구를 수행하여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가운데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으로 아버지의 인성지향형의 언어통제유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언어통제유형, 조망수용능력, 대인문제해결력

참 고 문 헌

고영자(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화진(1990). 아동의 공감발달과 친사회적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1991). 부모 권위척도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나림, 조순옥(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 원광보건전문대학 논문집, 6, 129~147.

김리은(1996).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여가(1996).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주(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홍(200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희(2001).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정신지체학생의 감정조망 및 조망단서 활용.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진(1991). 유아의 정서적 · 인지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정(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은 행동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수진(1996).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대인 문제해결 사고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영희(1990). 유치원교사의 교수전략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능력 비교.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혜숙(1997).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희영(1984). 5.6세 유아의 감정이입과 이타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박찬옥(1986).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선주(1988).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수현(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수원(2002).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동자((2002). 유아의 인기도와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현욱(1995). 자신과 타인이해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양재(1986). 부모의 언어적 상호작용방식과 아동의 역할 조망능력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미경(1990). 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 수행정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양례(1999). 아동들간의 인기도 유형과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재은(2001). 어머니의 언어유형이 유아의 대인문제해결 사고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순재(199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애리나(1990).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윤희(2000). 부모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완정(199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방식과 아동의 참조적 의사소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혜(1983). 5.6.8세 아동의 시각.인지.감정조망에 대한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1(1), 1-19.

이종헌(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감성지능 차이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주(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경(1998).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규란(2001). 유아에 대한 부와 모의 언어통제 유형 비교.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선원(2000).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의 발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하보영(200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의 차이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경옥(1998).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sher, S. R., Renshaw, P. D., & Hymel, S. (1982). Peer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In S. G Moore, & C. R. Cooper(Eds), The Young child; reviews of research.

Berk, L. E. (2000). *Child Developmen*t. Boston: Ally and Bacon.

Bernstein, B. A. (1971). Class, coder and control (Vol. 1): Theoretical studies towards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Devereux, E. C., Bronfenbrunner, U., & Rodgers, R. R. (1969). Chid-Rearing in England and United States: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257-270.

Eisenberg-Berg. N., & Leman, R. (1980). Altruism and the assessment of empathy in the preschool years. *Child Development*, 51, 551-557.

Feshbach, N. D., & Roe, K. (1968). Empathy in six and seven year olds. *Child Development*, 39, 133-145.

Gumperz. J. C. (1973), *Social control and socialization*. London & Boston : R.K.P.

Hudson. L. M., Forman, E. A., & Brion. S. (1982). Role Taking as Predictor of Prosocial Behavior in Cross-Age Tutors. *Child Development*. 53, 1320-1329

Kurdek, L. A., & Rodgen, M. M. (1975). Perceptual,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taking in kindergarten through sixth-grade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11(5), 643-650.

Lytton, H. (1977). Disciplinary encounters between young boys and their mothers and fathers: Is there a contingency system? *Developmental Psychology*, 15, 256-268.

Marvin, R, S., Greenberg, M. T., & Mossler, D. C. (1976). The early development of conceptual perspective

taking, *Child Development*, 47, 511-514.

Russell, G., & Russell, A. (1987).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 1573-1587.

Spivack, G., & Shure, M. B. (1974).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A cognitive approach to solving real-life problems*. San Francisco: Jossey-Bass.

Spivack, G., & Platt, J. J., & Shure, M. B. (1976). The problem solving approach adjust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2004. 05. 31 접수; 2004. 08. 04 채택)